

# 주간 통일정세

2018-08

## Contents

###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 I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 개요

분류	일자	
평화 관련 주요 동향	2.17	뮌헨안보회의, 북핵 집중논의...UN사무총장 “평화적 해법 촉구”(연합뉴스)
	2.15	北 응원단, 선글라스 끼고 첫 야외 응원 “장하다 김련향”(연합뉴스) 북한 응원단, 강릉서 또 깜짝 공연...2천여명 몰려 ‘박수’(연합뉴스)
남북 교류협력	2.16	평창 올림픽플라자에 올린 北 응원단 취주악...무도회 분위기(연합뉴스)
	2.17	北 응원단장 “한 핏줄 이은 자기 민족이 제일”(연합뉴스)
	2.20	北 응원단, 스타디움 앞 공연...취주악에 성악 무용까지(연합뉴스)
	2.21	강원도 교육감 “남북 교육 교류 희망...협력기금 부활도 가능”(연합뉴스) 북 응원단, 인제스피디움서 직원 대상 ‘감사공연’(연합뉴스)
	2.22	북 응원단, 23일 인제군민 위한 깜짝 무료 공연 펼쳐(연합뉴스) 北 응원단, 강릉 명소 정동진 찾아 악기 연주하며 부채춤(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 가. 남북한

- 특이사항 없음.

#### 나. 국제사회

2018. 2. 17.

##### ■ 뮌헨안보회의, 북핵 집중논의…UN사무총장 “평화적 해법 촉구”(연합뉴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각국에 촉구함.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군사적 수단은 제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평화적 해법을 주문했는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야욕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로 세계가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핵분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함.
- 그는 북한과 미국이 만나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북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함.

### 2. 남북 교류협력

2018. 2. 15.

##### ■ 北응원단, 선글라스 끼고 첫 야외 응원 “장하다 김련향”(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 경기가 열린 15일 오전 평창 용평 알파인 경기장에서 응원단은 이날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 경기에 출전한 북한 김련향 응원에 나섬.
- 응원단이 ‘우리는’을 선창하면 남측 관중이 ‘하나다’를 외치는 것으로 받아주며 ‘우리 민족끼리’, ‘조국 통일’ 등 구호를 남북 응원단이 함께 외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함.
- 평창올림픽 경기에서 북한 응원단의 야외 응원은 이번이 처음임.

■ **북한 응원단, 강릉서 또 깜짝 공연...2천여명 몰려 '박수'(연합뉴스)**

- 설 연휴 첫날인 15일 오후 강원도 강릉 올림픽파크 라이브 사이트 원형의 야외 공연장에 남측 대중에게도 익숙한 북측 가요 '반갑습니다' 연주가 울려 퍼졌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한을 찾은 북한 응원단의 취주악 공연이었음.
- 취주악 공연을 한 북한 응원단은 약 80명으로, 빨간색 상의와 모자, 하얀색 바지와 신발의 의장대 복장이었으며, 나머지 응원단은 평소 착용하는 빨간색 체육복을 입고 폴리스라인 안쪽 취주악단 주변에 둘러서 어깨춤과 함께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띄움.
- 북한 응원단이 연주한 첫 곡은 '반갑습니다'였으며, 북한 응원단은 '반갑습니다'에 이어 장중한 느낌의 '아리랑'을 비롯해 다양한 노래를 메들리 방식으로 연주한 뒤 북한 가요 '다시 만납시다'로 공연을 마무리했고 시민들은 박수로 격려했고, 북한 응원단이 공연한 시간은 약 30분이었음.

2018. 2. 16.

■ **평창 올림픽플라자에 올린 北응원단 취주악...무도회 분위기(연합뉴스)**

- 북한 응원단은 17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약 30분 동안 평창 올림픽플라자 근처에 있는 상지대관령고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취주악 공연을 함.
- 북한 응원단 가운데 취주악단 약 80명이 연주하고 나머지 응원단은 평소에 입는 빨간색 체육복 차림으로 주위에 늘어서 박수와 춤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폴리스라인 밖에는 수천 명이 모여들어 응원단의 공연을 관람함.
- 남측 대중에도 익숙한 북측 가요 '반갑습니다'로 시작한 공연은 '아리랑', '옹헤야', '꽤지나칭칭 나네' 등 메들리로 이어져 북측 가요 '다시 만납시다'로 끝났음.

2018. 2. 17.

■ **北응원단장 “한 핏줄 이은 자기 민족이 제일”(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북한 응원단의 오영철 응원단장은 17일 “한 핏줄을 이은 자기 민족이 제일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는데, 오 단장은 이날 강원도 강릉 세인트존스경포호텔에서 열린 만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로 “남강원도 땅에 머무른 지도 어느덧 열흘 남짓한 기간이 흘렀다. 길지 않은 이 나날에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함.

- 이날 북측에서는 오 단장을 비롯한 응원단 229명 전원과 기자단 21명 등 250여 명이 만찬에 참석했으며, 우리측에서는 최 지사와 김동일 도의회 의장, 한의동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상임대표, 통일 관련 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함.
- 이번 만찬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강원도를 방문한 북한 응원단이 가족과 설 명절을 함께 하지 못함을 동포애로 위로하고 평화올림픽을 위한 북한 응원단의 활동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했으며, 강원도는 LED 트론 퍼포먼스와 가수 한영애, 안치환의 공연도 준비했다. 응원단은 예정에 없던 노래 공연으로 ‘반갑습니다’, ‘고향의 봄’, ‘다시 만나다’ 등 세 곡을 부르며 화답함.

## 2018. 2. 20.

### ■ 북응원단, 스타디움 앞 공연...취주악에 성악 무용까지(연합뉴스)

- 북한 응원단 약 130명은 이날 오후 5시 5분께부터 약 30분 동안 올림픽스타디움이 있는 평창 올림픽플라자 내 원형 국기 게양대에서 공연함.
- 공연은 여느 때처럼 취주악단의 북한 가요 ‘반갑습니다’의 연주로 시작돼 ‘아리랑’을 비롯한 민요와 북한 가요 ‘달려가자 미래로’ 등의 메들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취주악단이 민요를 연주할 때 주변에 둘러서 덩실덩실 춤을 추던 응원단 3명은 ‘뱃노래’ 연주가 끝나자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와 취주악단의 반주에 맞춰 ‘고향의 봄’을 3중창으로 불렀음.
- 북한 응원단이 야외 공연 중 성악을 선보인 것은 처음인데, 취주악단의 ‘옹헤야’ 연주 다음에는 응원단 5명이 앞으로 나와 ‘까치 까치 설날은’을 열창하기도 했으며 이번 공연은 울동의 비중을 크게 높인 점도 눈에 띄었고, 북한 응원단이 평창 올림픽 경기를 응원할 때 흰색 체육복을 입고 에어로빅을 연상케 하는 울동을 해온 무용수 8명은 이번 공연에서 역동적인 군무를 펼쳤음.

## 2018. 2. 21.

### ■ 강원도 교육감 “남북 교육 교류 희망...협력기금 부활도 가능”(연합뉴스)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교육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민 교육감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인 문제보다 교육 문제는 덜 민감하므로 교육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남북 강원도 학생들만의 교류

가 될지, 아니면 좀 더 확대해 전국 학생들의 교류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번 타진해보겠다”라고 말함.

- 이어 “오는 4월 최문순 강원지사가 평양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에 같이 가자고 제안해 함께 가볼까 한다”며 “사전에 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했다가 그때 우리가 어떤 교류를 할지 제안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임.

#### ■ 북 응원단, 인제스피디움서 직원 대상 ‘감사공연’(연합뉴스)

- 북한 응원단이 강원도 인제에 마련된 숙소 관계자들을 위해 21일 ‘감사공연’을 펼쳤는데, 이날 공연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0분간 단원들이 묶는 인제스피디움 콘도 옆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었으며, 북한 응원단은 스피디움 측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 의미로 공연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짐.
- 오영철 북한 응원단장은 시작에 앞서 무대에 올라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있는 동안 잘 보살펴서 고맙다”고 인사했으며, ‘반갑습니다’ 연주로 시작한 취주악단은 ‘아리랑’을 비롯해 북한민요 ‘김치깍두기’, ‘토장’ 등을 메들리로 선보이며 분위기를 띄웠음.
- 이어 단원들은 ‘고향의 봄’과 ‘까치까치 설날은’을 합창하고 역동적인 율동을 펼쳤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는 스피디움 직원과 정부 측 인사 등 170여명이 참석함.

2018. 2. 22.

#### ■ 북 응원단, 23일 인제군민 위한 깜짝 무료 공연 펼쳐(연합뉴스)

- 인제군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하기 위해 13년 만에 방남한 북측 응원단이 이날 오후 3시 남북리 다목적구장에서 무료 공연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 이번 인제 공연은 대회 기간 따뜻한 마음을 보내 준 인제군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연에서는 ‘반갑습니다’, ‘고향의 봄’, ‘다시 만납시다’ 등의 노래와 율동을 선보일 예정임.
- 공연 관람 인원은 주민과 경호인력 등 1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 ■ 북 응원단, 강릉 명소 정동진 찾아 악기 연주하며 부채춤(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 중인 북한 응원단이 22일 오후 4시께부터 약 30분 동안 강릉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에서 공연함.

- 북한 응원단은 이날 트럼펫, 트럼본, 클라리넷, 플루트 등 관악기를 손에 든 취주악단 약 80명을 포함한 응원단 약 230명은 대형 모래시계 조형물 앞 광장에서 공연을 선보였으며, 취주악단은 남측 대중에도 익숙한 북측 가요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아리랑’, ‘옹헤야’, ‘꽤지나칭칭나네’ 등 민요와 북측 가요를 메들리 식으로 연주했고 나머지 응원단은 취주악단 좌우와 뒤에 늘어서 한반도기를 들고 덩실덩실 춤추며 분위기를 띄웠음.
- 평창올림픽 경기장에서 부채춤을 선보인 무용수 6명은 파란색 저고리와 하얀색 치마를 입고 분홍색 부채를 들고나와 취주악단의 민요 연주에 맞춰 춤을 췄고 하얀색 체육복을 입은 무용수 8명은 에어로빅을 연상케 하는 역동적인 군무를 펼쳤으며, 공연 후반부에는 파란색과 하얀색이 섞인 체육복 상의와 파란색 바지 차림의 응원단 20여명이 취주악단 대열에 섞여 율동을 선보임.

## I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215	北 최룡해 “병진의 기치 들고 핵 억제력을 더 튼튼히 다져야”(연합뉴스)
		실각 北 황병서 추정인물, 공식행사에 다시 등장(연합뉴스)
	216	北 김정은, 김정일 생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연합뉴스)
김영남,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연합뉴스)		
군사	216	北신문, 김정일 생일 맞아 ‘핵무력 건설 업적’ 부각(연합뉴스)
	220	“美 6개월간 북한 겨냥한 사이버 공격 기반 구축”(연합뉴스)
경제	218	38노스 “북 영변 실험용 경수로 진전…가동 임박한 듯”(연합뉴스)
사회	216	RFA “제재 영향으로 北 연료값 여전히 비싸”(연합뉴스)
문화	217	북한TV, 김정일 생일 경축 불꽃놀이 생중계(연합뉴스)
외교 국방	216	北예술단, 평양서 귀환 공연…“南노래도 무대 올려”(연합뉴스)
		VOA “13일 北유조선에 화물 넘기던 선박, 중국회사 소유”(연합뉴스)
	217	IOC 바흐 “북한 도쿄올림픽 참가 도울 것…평창 이후 방북”(연합뉴스)
	217	北신문 “가질것 다 가진 우리, 美와 대화에 목마르지 않아”(연합뉴스)
	219	北신문 “가질것 다 가진 우리, 美와 대화에 목마르지 않아”(연합뉴스)
	221	미국무부, ‘워비어 사망’ 관련 “北 책임져야” 강조(연합뉴스)
국방	221	RFA “깁럽 조사서 미국인 51%, 최대 적국으로 북한 꼽아”(연합뉴스)
		펜스-김여정 비밀만남 약속부터 취소까지…애초부터 ‘동상이몽’(연합뉴스)
	222	아베, 김영남에게 “‘핵·미사일 포기’ 김정은에 전해달라” 요청(연합뉴스)
	222	日지방의원 등 100명 4~5월 방북 검토…“대화 필요성 제안”(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2.16	금수산궁전 참배	최룡해, 박광호, 리수용, 박광호,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김영철, 최 휘, 박태덕	-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8. 2. 16.

##### ■ 北 김정은, 김정일 생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에 즈음하여 2월 16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고 보도함.
- 통신에 의하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박광호·리수용·김평해·태종수·오수용·안정수·박태성·김영철·최휘·박태덕 등 당 부위원장들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금수산궁전에 안치된 김정일 시신을 참배했으며, 이날 참배에는 군부 고위인사들이 동행하지 않음.
- 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은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감으로써 장군님(김정일)의 애국 염원, 강국 염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2. 15.

##### ■ 北 최룡해 “병진의 기치 들고 핵 억제력을 더 튼튼히 다져야”(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15일 “김정일 동지 탄생 7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다고 보도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중앙보고대회에 불참했으며,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이날 행사 주석단에 앉아있어야 할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음.
-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의 위력한 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자주·평화·친선의

이념 밑에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실라 北 황병서 추정인물, 공식행사에 다시 등장(연합뉴스)**

-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지내다가 최근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황병서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식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15일 포착됨.
-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7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녹화 중계했는데, 이 영상에서 황병서로 추정되는 인물이 노동당 간부들이 앉아있는 행사장 객석에 자리 잡은 모습이 확인됨.
- 북한 TV에서 확인된 인물이 황병서라면 그가 사상 교육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018. 2. 16.

■ **김영남,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우당 위원장 그리고 내각·근로 단체·성·중앙기관 일꾼들이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참가자들은 훈장보존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도와 외국 방문의 길에서 이용한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 보존실들을 돌아보았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2. 16.

■ **北신문, 김정일 생일 맞아 ‘핵무력 건설 업적’ 부각(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일 동지의 애국 염원, 강국 염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늘 우리 공화국이 국가핵무력 건설에서 역사적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승리봉을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나아가고 있는 것도 장군님(김정일)의 혁명업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고 주장함.
- 이어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가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불패의 군사 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르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가 굳건히 수호되게 되었다”면서 “장군님의 선군혁명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세계 최강의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또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며 “전당과 온 사회에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사 관철하여야 한다”고 독려함.

## 2. 군사

###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8. 2. 20.

#### ■ 38노스 “북 영변 실험용 경수로 진전…가동 임박한 듯”(연합뉴스)

- ‘38노스’는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2010년부터 평안북도 영변 핵 단지에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경수형 원자로·ELWR)의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힘.
- 지난해 전력망을 연결하고 내부 장비 설치, 냉각수 공급을 위한 준비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며,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실험용 경수로는 외관적으로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음.
- 작년 중반과 비교하면 인근 공사장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잠잠해졌고, 공사장은 전반적으로 깔끔해졌으며 눈이 내렸던 길도 깨끗이 치워져 있는 등 도로도 잘 유지돼 있음.
- 이와 함께 최근 구룡강을 가로지르는 댐이 건설되었는데, 댐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사이, 두 번째 수조 바로 아래에 건설되었으며, 이는 경수로 가동을 앞두고 냉각탑의 안정적인 냉각수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38노스는 설명함.
- 11일 위성사진을 통해 5MW 원자로에서 배출되는 증기로 인근 강의 얼음이 녹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최소한 최근 원자로가 부분적으로 가동됐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38노스는 해석함.

### 나. 한국 및 미국

2018. 2. 16.

#### ■ “美, 6개월간 북한 겨냥한 사이버 공격 기반 구축”(연합뉴스)

- ‘포린 폴리시’는 15일(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정보 관리 6명의 말을 인용해

- 미국이 지난 6개월간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한국과 일본 등지에 해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원격 기지를 세우는 등 북한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기반을 은밀하게 구축해왔다고 보도함.
- 사이버 공격 기반 구축 작업은 해당 지역으로 연결하는 케이블 설치와 북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원격·감청 기지를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함.
  - 한 전직 정보 관리는 “국가의 기술 초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며 “수십억 달러를 들여 통신 정보, 위성 사진, 지리 정보와 다른 기술 능력을 북한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첫 공격은 사이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3. 경제

####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경제 실태

2018. 2. 18.

- RFA “제재 영향으로 北 연료값 여전히 비싸”(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아시아프레스가 제공한 지난 12일 기준 자료를 인용, 북한 북부지방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1kg의 가격이 북한 돈으로 1만8천225원, 디젤유는 1kg에 1만800원이라고 전함.
  - 그러면서 “기록적인 오름세였던 지난 1월 초보다는 떨어졌지만 지난해 12월보다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연료값의 폭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북한 당국이 원유의 수입 감소를 우려해 유통을 통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임.
  - RFA는 “양강도에서는 가정의 난방과 취사에 필요한 나무를 산에서 도시로 옮기기까지 비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대에서는 차를 움직이는 연료가 없어 목탄차나 소달구지를 이용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전함.

####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4.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8. 2. 16.

###### ■ 북한TV, 김정일 생일 경축 불꽃놀이 생중계(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은 생중계를 통해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을 경축해 16일 오후 7시(한국시간 오후 7시 30분)부터 평양의 주체사상탑 주변 대동강반에서 축포 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함.
- 중앙TV는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양안에는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의 긍지와 영광을 더해주며 2월의 하늘가에 펼쳐질 경축의 불보라를 보기위해 모여 온 각 계층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함.

2018. 2. 17.

###### ■ 北예술단, 평양서 귀환 공연…“南노래도 무대 올려”(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은 “제23차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 축하공연을 성과적으로 마친 삼지연관현악단의 귀환 공연이 16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되었다”며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 간부들과 예술 부문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들이 관람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출연자들이) 화해와 단합의 계기를 좋은 결실로 맺게 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새로운 형식의 참신한 노래 형상과 열정적이며 세련된 기악, 높은 예술적 기량으로 승화시켜 황홀한 음악세계를 펼쳤다”며 “우리 민족의 음악적

- 정서를 훌륭히 형상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전함.
- 방송은 특히 “출연자들은 관현악 ‘친근한 선율’에서 ‘아리랑’을 비롯한 세계 명곡들을 손색없이 연주하였으며 남녀 인민들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 여러 곡의 남조선 노래들도 무대에 올랐다”고도 밝혔으나 구체적인 곡목은 밝히지 않음.

## 5.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8. 2. 17.

#### ■ 北신문 “가질것 다 가진 우리, 美와 대화에 목마르지 않아”(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7일 ‘곤경에 빠진 미국의 가련한 몰골만 드러낸 꼴불견 행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대표단을 이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행보를 비난하며 “명백히 말해두건대 할 일을 다 해놓고 가질것을 다 가진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 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바빠날(급해질)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 기간 여론의 주요한 관심사로 된 것은 이번 기회에 조미(북미) 사이의 접촉이나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면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트럼프 패거리들이 그에 대해 호들갑을 떨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이 제재 압박으로 나오든, 군사적 선택을 하든,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처할 다양한 방안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2018. 2. 19.

#### ■ 美국무부, ‘웬비어 사망’ 관련 “北 책임져야” 강조(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사망한 것을 미국 탓으로 돌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함.
-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VOA에 “북한은 웬비어를 부당하게 수감시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이 전함.

- 케이비 대변인은 미국이 워비어 사망사건을 또 꺼내서 북한과 억지로 연관시키며 ‘반공화국 모략행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는 등의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실장의 비난에 대해서는 “북한은 선동적인 수사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함.

## 2018. 2. 21.

### ■ RFA “갤럽 조사서 미국인 51%, 최대 적국으로 북한 꼽아”(연합뉴스)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 “미국 여론 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1일부터 10일 까지 성인 미국인 1천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가 북한을 미국의 최대 적국으로 꼽았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함.
- 북한은 2016년 갤럽의 같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6%가 최대 적국으로 꼽아 1위를 차지했지만 2년 사이에 응답자 비율이 16%에서 51%로 3배 이상 증가함.
- RFA는 “갤럽은 북한이 이번에 적국 1위로 다시 지목된 이유로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북 양국 정상이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위기를 고조시킨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고 소개함.

### ■ 펜스-김여정 비밀만남 약속부터 취소까지...애초부터 ‘동상이몽’(연합뉴스)

-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평창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북한 측의 의사가 개회식 2주 전쯤 미 중앙정보국(CIA)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전달됐다고 함.
- 물밑 제안을 받은 미국은 지난 2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 회의에서 북한과 만나보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참석했고 마이크 폼페이 오 CIA 국장도 전화로 회의에 동참했으며,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고 WP가 보도함.
- 이후 북미 양측은 펜스 부통령의 방한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난다는 데 합의했으나 한국 정부의 관료는 아무도 배석하지 않기로 함.
- 북한은 10일 오전까지만 해도 펜스 부통령 측에 ‘북미 만남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긍정적 신호를 보냈으나, 예정 시간을 2시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취소를 통보했다고 이 신문이 전함.
- 역사적 만남의 무산이라는 아쉬운 반응도 나오지만 애초에 만남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시각이 워낙 달랐다는 점에서 예고된 불발이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

## 나. 북·중 관계

2018. 2. 16.

### ■ VOA “13일 北유조선에 화물 넘기던 선박, 중국회사 소유”(연합뉴스)

- 동중국해 해상에서 지난 13일 북한 선박에 화물을 넘겨주던 유조선이 중국에 등록된 회사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VOA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에 제출된 선박 등록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적 유조선과 지난 13일 해상에서 환적한 ‘완행 11호’의 소유주는 ‘저장 완행 쉬핑’이며 등록지를 중국으로 기재했다고 밝힘.
- 다만 ‘저장 완행 쉬핑’은 회사의 주소지를 홍콩의 한 건물로 기재하면서 우편물 수신인을 ‘홍콩 완행 무역’이라고 명시했다고 VOA는 설명함.

## 다. 북·일 관계

2018. 2. 21.

### ■ 아베, 김영남에게 “핵·미사일 포기’ 김정은에 전해달라” 요청(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1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아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관저에서 만난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현지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잠시 대화할 당시 북핵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힘.
- 아마구치 대표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올림픽 사전 리셉션 장소에서 김영남 위원장과 잠시 대화를 했을 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의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발언함.
- 아베 총리는 김영남 위원장과의 대화에 대해 “의미가 있었다”며 “여기서 밖에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기회를 살렸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2018. 2. 22.

### ■ 지자체의원 등 100명 4~5월 방북 검토…“대화 필요성 제언”(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은 22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초당파 현직 지방의원들과 전직 의원

- 들이 100명 규모의 4월 말~5월 초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북한에 정책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는 방북단 참가 예정자의 말을 전하면서, 방북 목적은 북한 노동당 간부와 의견을 교환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함.
  - 이에 따르면 방북단은 기타하라 마모루(北原守) 후쿠오카(福岡)현 북일우호협회 회장을 중심으로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전국 지방의원과 전직 의원 등의 참가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짐.

## 라. 북·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2. 16.

### ■ IOC 바흐 “북한 도쿄올림픽 참가 도울 것…평창 이후 방북”(연합뉴스)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16일 평창에서 교도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북한의 참가에 관해) 평창올림픽에서 한 것과 같은 접근을 할 것”이라며 “북한 선수들이 참가 준비를 하고 출전자격을 얻을 수 있게 돕기를 바란다”고 밝힘.
- 그는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초청을 받아들여 “서로 편리한 시기를 잡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다만 방북 시기는 “평창올림픽 기간은 아니”라고 함.
-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개최식에서 남한과 북한의 공동 입장은 그 곳에 있는 모든 나라에 올림픽 가치를 매우 강하게 보여줬다”면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를 누리게 함으로써 올림픽이 어떤 행사인지 모두가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함.

# Ⅲ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02.17		美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트럼프에 제안...한국 포함(연합뉴스)
	02.19	靑 "안보와 통상 논리 다르다"...한미FTA 개정 적극대응 시사(연합뉴스)	
	02.20		브룩스 주한美사령관, 한미연합훈련 지속 확인..."필수적"(연합뉴스)
	02.22		'퍼스트 도터' 이방카, 23일 방한...문 대통령과 당일 만찬(연합뉴스)
		내달부터 한미방위비협상...액수·동맹관리·투명성 숙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02.22		中 "평창올림픽 후 남북·북미 대화 환영...기회의 창 잡아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02.16		일본의 독도 고집..."다케시마의 날'에 6년연속 차관급 파견"(연합뉴스)
	02.22	정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강력 항의...폐지 촉구"(연합뉴스)	
	02.23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02.20	“文대통령, 월드컵 때 러시아行…푸틴 초청 수락”…靑 “검토중”(연합뉴스)	
	02.21	한러, LNG 등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02.16		美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주장에 中 도서관 건립 응수(연합뉴스)
	02.17		중국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규제 근거 없다"...보복 조치 시사(연합뉴스)
	02.20		중국, 美·英겨냥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군사행동 자유아냐"(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02.15	美日정상 "北비핵화 압박지속"...트럼프 "美에 공장 더 지어달라"(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02.17	'푸틴의 주방장' 등 美대선 개입 러시아 인사·기관 무더기 기소(연합뉴스)	
	02.21	백악관 "러시아, 미 대선개입은 분명하지만 결과에 영향 못줘"(연합뉴스)	
		미 국무부, 시리아 사태 우려 표명..."러시아도 책임"(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02.17	'日 영유권주장 반발' 中 해경, 이틀 연속 센카쿠열도 해역 진입(연합뉴스)	
	02.21	중국 해경국 선박, 중일 영유권 분쟁 센카쿠 해역 또 진입(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02.21		러시아 전략폭격기, 오키나와 부근 비행...日 전투기 긴급발진(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8. 02. 17.

##### ■ 美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트럼프에 제안…한국 포함(연합뉴스)

-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함.
-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함.
-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임.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철강 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알루미늄 가동률을 48%에서 역시 80%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힘.

2018. 02. 19.

##### ■ 靑 “안보와 통상 논리 다르다”…한미FTA 개정 적극대응 시사(연합뉴스)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함.
- 이 같은 언급은 동맹에 기초한 한미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한미FTA 개정과 통상 압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2018. 02. 20.

##### ■ 브룩스 주한美사령관, 한미연합훈련 지속 확인…“필수적”(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 청문회 보고서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브룩스 사령관은 보고서에서 “우리는 두 개의 주요 전구 (theater-level) 지휘소 연습과 한 개의 야외 기동연습을 해마다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2개의 지휘소 연습은 봄에 실시하는 ‘키리졸브’와 8월 말에 실시하는 ‘울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야외기동연습은 키리졸브와 병행하는 ‘독수리 연습’을 뜻한다고 이 방송은 전함.
  - 브룩스 사령관은 이들 훈련이 동맹 강화와 북한의 침략 억제, 정전 유지를 위한 유엔사령부의 능력 보장과 준비 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2018. 02. 22.

■ **‘퍼스트 도터’ 이방카, 23일 방한…문 대통령과 당일 만찬(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이방카가 오는 23일 (한국시간) 방한한다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힘.
-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의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이방카 선임고문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뒤 저녁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가짐. 이방카 고문은 3박 4일 간 체류하며 동계올림픽을 관람하고 25일 열리는 폐막식에 참석한 뒤 26일 미국으로 출발함.
-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화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철강 규제 등 한미 간 통상 마찰이 고조되는 시점이어서 이방카 고문이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내달부터 한미방위비협상…액수·동맹관리·투명성 숙제(연합뉴스)**

- 다음달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예고되어 온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증액 공세 앞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합리적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투명성 확보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할 상황임.
- 2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중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를 조율중임. 하와이에서 첫 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됨.
- 우리 측 수석대표는 주스리랑카 대사를 역임한 장원삼 방위비협상 대표가, 미국 측 수석대표는 티모시 베즈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각각 맡음.



## 나. 한·중 관계

2018. 02. 22.

### ■ 中 “평창올림픽 후 남북·북미 대화 환영…기회의 창 잡아야”(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환영하고 나섬.
- 경쌍(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를 핵심축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낸 걸 두고 이런 견해를 피력함.
- 경 대변인은 “남북 양측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일련의 적극적인 상호 교류와 우호적인 활동을 진행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한반도의 교착 국면을 없애고 대화와 담판으로 악순환을 타파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이며 남북 양측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함.

## 다. 한·일 관계

2018. 02. 16.

### ■ 일본의 독도 고집…“다케시마의 날”에 6년연속 차관급 파견”(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島根) 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기념식에 차관급인 야마시타 유헤이(山下雄平)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이 16일 전함.
- 일본 정부가 방침대로 야마시타 정무관을 파견하면 6년 연속 차관급 정부 인사를 보내는 것임. 일본은 지난해에는 이 행사에 당시 무타이 슌스케(務台俊介) 내각부 정무관을 보냄.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 일본 정부 인사가 참가한 것은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임.

2018. 02. 22.

### ■ 정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강력 항의…폐지 촉구”(연합뉴스)

-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열린 이른바 ‘제13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가 차관급 고위 당국자를

파견한 것 등에 대해 강력 항의함.

- 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2월 22일 목요일 일본 지방 정부가 주최한 독도 도발 행사에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의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힘.
-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겸허히 직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8. 02. 23.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연합뉴스)

-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함.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함.
-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WTO는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라. 한·러 관계

2018. 02. 20.

■ “文대통령, 월드컵 때 러시아行…푸틴 초청 수락”…靑 “검토중”(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기간 중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타스통신이 20일 보도함.
- 한국을 찾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부위원장이자 대통령 보좌관인 이고리 레비틴은 이날 러시아 취재진에 “푸틴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월드컵 기간 모스크바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힘. 부위원장은 “현재 외교 채널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문 날짜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함.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측이 월드컵 기간에 방문해 경기도 관람하고 선수들을 격려하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문 대통령은 ‘검토하겠다’ 정도로 대답했다”고 전함.

2018. 02. 21.

■ **한러, LNG 등 에너지자원 협력 확대(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러시아 에너지부와 ‘제15차 한·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 이 위원회는 에너지자원분야 양국 정부 공식 협력 채널로 1992년부터 열리고 있음. 올해는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안톤 이누친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함.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함. 특히 가스 분야에서는 가스공사와 가스프롬 간 협력협정(2016년 12월)을 토대로 양국 LNG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또한 북극 LNG2 등 러시아가 새롭게 추진하는 LNG 프로젝트 관련 정보도 교환하기로 합의함.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8. 02. 16.

■ **美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주장에 中 도서관 건립 응수(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을 군사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남중국해 인공섬에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응수함.
- 16일 중신망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쑤사(三沙)시의 우디 섬(중국명 융싱다오(<永興島>))에 하이난(海南)성 도서관 분관이 정식 개관했다. 중국은 이 도서관을 중국 최남단의 공공도서관이라고 주장함.
-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등대 및 병원 설립, 통신망 구축, 해수 담수화 공사, 관광 확대 등을 통해 정착촌을 조성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기지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임.

2018. 02. 17.

■ **중국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규제 근거 없다”…보복 조치 시사(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는 17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대적인 무역 규제를 제안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를 가리켜 “근거가 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보복 조치를 시사함.
- 신화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왕허쥘(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에 무역 보호수단의 사용을 자제하고 세계 경제와 무역질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다자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힘.
- 왕 국장은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의 국익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함. 다만 그는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2018. 02. 20.

■ **중국, 美·英겨냥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군사행동 자유아냐”(연합뉴스)**

-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중국 국방부 인사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가 군사행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이 회의에 중국 측 대표단으로 참석한 저우보(周波) 중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관 공실 주임은 19일 열린 남중국해 문제 소그룹 토론에서 “일부 국가가 국제법을 잘못 해석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가 군사행동의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저우 주임은 “중국은 국제법인 ‘유엔 해양법 공약’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이 법에 기술된 항행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이해해 ‘군사행동의 자유’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군사행동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은 ‘유엔 해양법 공약’에 의해 결정될 원칙은 아니다”고 강조함.

나. 미·일 관계

2018. 02. 15.

■ **美日정상 “北비핵화 압박지속”…트럼프 “美에 공장 더 지어달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1시간 1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교도

- 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전함.
- NHK는 두 정상이 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실시가 연기됐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 패럴림픽이 끝난 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전함.
  - 한편, 이날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여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더 늘려서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힘.

#### 다. 미·러 관계

2018. 02. 17.

##### ■ ‘푸틴의 주방장’ 등 美대선 개입 러시아 인사·기관 무더기 기소(연합뉴스)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인사와 기관이 무더기로 특검에 의해 기소됨.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뮐러 특검은 16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의 게시글과 광고 등을 이용해 미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인사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함.
-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뮐러 특검이 러시아 측 인사와 기관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특히 기소된 러시아 인사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미 언론에 공개된 특검의 기소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대선 2년 전인 2014년부터 사이버 공간을 통한 대선 개입 활동에 착수함. 201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본사를 둔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가 선거 공작의 본거지임.

2018. 02. 21.

##### ■ 백악관 “러시아, 미 대선개입은 분명하지만 결과에 영향 못줘”(연합뉴스)

-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뮐러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이 개입이 대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한 것은 매우 분명하다”며 “그러나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도 매우 분명하다”고 말함.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몇 차례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인정했

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러시아에 대해 훨씬 강경했다”고 주장함.

■ **미 국무부, 시리아 사태 우려 표명…“러시아도 책임”(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부군의 무차별한 공습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중단하기 위한 러시아 등 당사국의 노력을 강조함.
-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반군 지역 동(東) 구타에서 벌어지는 인도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아사드 정권의 ‘포위·기아 전술’을 비난하고, 이를 중단시키려는 유엔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힘.
- 노어트 대변인은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과 그 동맹에 대한 지원을 끝내야 한다”며 “그들은 이 공격, 그리고 참혹한 민간인 사망 인도적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라. 중·일 관계

2018. 02. 17.

■ **‘日 영유권주장 반발’ 中 해경, 이들 연속 센카쿠열도 해역 진입(연합뉴스)**

-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14일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일본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하자 중국 해경 선박이 연달아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하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고 있음.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중국 해경 선박들이 지난 16일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을 향해했다고 17일 밝힘. 인민일보는 해경 선박 4척이 전날 오후 3시께 센카쿠열도 구마섬 인근 해역을 지났으며, 이 해역은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라고 전함.
- 중국 해경은 지난 15일에도 선박 4척을 센카쿠열도 다이쇼 섬 인근 해역으로 보낸 항해한 바 있음.

2018. 02. 21.

■ **중국 해경국 선박, 중일 영유권 분쟁 센카쿠 해역 또 진입(연합뉴스)**

- 21일 오전 10시께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

魚島> 열도 구바시마(久場島) 앞바다에 중국 해경국 선박 3척이 진입했다고 NHK가 전함.

- 중국 해경국 선박이 센카쿠열도 인근 영유권 분쟁 해역에 진입한 것은 지난 13일 이후 8일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네 번째임.
-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정보연락실을 관저대책실로 격상시키고 정보 수집 및 경계감시에 나섬.

##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바. 일·러 관계

2018. 02. 21.

### ■ 러시아 전략폭격기, 오키나와 부근 비행...日 전투기 긴급발진(연합뉴스)

- 러시아 전략폭격기 2대가 20일 일본 인근 태평양 상공을 비행,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힘.
- 21일 방위성에 따르면 러시아의 투폴레프(TU)-95 장거리 폭격기 2대가 전날 일본열도 인근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면서 오키나와(沖繩) 부근까지 접근하며 장거리 비행을 함. 일본은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시켰으나 러시아 폭격기에 의한 영공 침범은 없었음.
- 러시아 군용기가 전날과 같은 코스로 오키나와 부근까지 비행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함.

# IV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2.18	러시아 연해주정부 “北노동자 연말까지 계속 일할 것”(연합뉴스)
	2.20	웹비어 부친 “아들 죽음 북 당국이 책임져야”(자유아시아방송)
	2.21	미 하원의원들, 북 억류 미국인 송환 촉구 “인권 문제 계속 거론해야”(자유아시아방송)
	2.22	앰네스티 “북한 주민, 계속 증대한 인권 유린 직면”(자유아시아방송)
	2.23	미 북한인권단체 “위성사진 제공 국가지리정보국 계획 환영”(자유아시아방송) 북한, 여종업원 납치 주장 순수하다면 한·일·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해야”(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2.15	北 “美 인권문제 걸고 들면 값비싼 대가 치를 것”(연합뉴스)
	2.20	북, 명절배급이 오히려 주민 불만 키워(자유아시아방송)
	2.21	귀국 앞둔 북 근로자들 편법 외화벌이(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2.16	이산가족들 임진각서 설 합동차례 “생사 확인, 자유 상봉 실현돼야”(미국의소리)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2.18	“아들 보러 돌아가려고…” 北보위성에 쌀 130t 보낸 탈북민(연합뉴스)
	2.21	캐나다 정부 “5년간 탈북자 165명 추방, 95명 추방 절차중”(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2.15	프랑스단체, 북 북창 양어장에 기술지원(자유아시아방송)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2. 18.

### ■ 러시아 연해주정부 “北노동자 연말까지 계속 일할 것”(연합뉴스)

-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올해 말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 정부가 현지시간으로 16일 밝혔다.
- 연해주 주지사 권한 대행 안드레이 타라센코는 이날 러시아 남부 도시 소치에서 열린 투자포럼에 참석해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연말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연해주 수산물 가공 산업 등의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몹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이들의 체류 허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 타라센코 대행의 이러한 설명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일부 북한 노동자들을 귀환시키기 시작했다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의 이달 초 인터뷰 발언에 이어 나온 것임.

2018. 2. 20.

### ■ 웹비어 부친 “아들 죽음 북 당국이 책임져야”(자유아시아방송)

- 지난해 6월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풀려났지만 결국 목숨을 잃은 오토 웹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웹비어 씨가 20일 제10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회의(Geneva Summi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에 참석해 북한 정권을 규탄함.
- 프레드 웹비어 씨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호기심에서 한 행동 때문에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채 ‘전쟁포로’ 취급을 받고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지적함.
- 또한 북한 당국이 자신의 아들을 1년 반 동안 인질로 삼았다고 강조했으며, 북한이 편지조차 주고 받지 못하게 해 아들이 고향으로 돌려보내지기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매우 건강한 줄 알고 있었다고 함.

2018. 2. 21.

### ■ 미 하원의원들, 북 억류 미국인 송환 촉구 “인권 문제 계속 거론해야”(자유아시아방송)

- 민주당 소속 셀리아 잭슨 리 하원의원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밝힘.
- 잭슨 리 의원은 최근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북한에 미국인들이 여전히 억류돼 있는 것은 비극이라며, 의회는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북한의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와 미국인 송환 문제 또한 언급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으며, 미국은 이를 위해 더욱 빨리 움직여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을 더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잭슨 리 의원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중에서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송환 문제를 우선 순위로 뒤편에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 2018. 2. 22.

### ■ 앰네스티 “북한 주민, 계속 증대한 인권 유린 직면”(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힘.
- 이 단체는 22일, 전 세계 159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최대 12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강제노동과 고문, 부당대우를 당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됐다고 지적함. 특히 이 같은 인권유린 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지만, 지난해에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인 이들 중 다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들은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거나 ‘연좌제’의 적용을 받아 자의적으로 수감됐다고 밝힘.
- 이어 토니 김과 김학송 씨 등 외국 국적자가 장기간 체포, 구금되는 일도 계속됐으며, 북한에 수감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웹비어 씨가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지 몇새 만에 사망했지만 북한 당국은 그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함.
-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도 지적했는데, 북한 당국은 노동자의 통신과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고, 노동자들이 파견된 국가에서 노동권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것임.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렸고, 산업 안전과 보건과 관련해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지적함.

## 2018. 2. 23.

■ **미 북한인권단체 “위성사진 제공 국가지리정보국 계획 환영”(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이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등을 비정부기구(NGO)와 연구소 등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21일 보도함.
- 국가지리정보국의 군사정보 분석가인 크리스 라스무센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비정부기구와의 첫 번째 협력은 북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그 동안 북한 인권단체들은 상업용 위성사진과 탈북자 증언 등을 활용해 대규모 매장지와 정치범수용소 같은 북한의 인권 유린 증거를 찾음.
- 라스무센은 국가지리정보국의 지원이 그 같은 활동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아직 합의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며 어떤 단체와 협력할지는 밝히지 않음.
-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밝혀 온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지리정보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함.

■ **“북한, 여종업원 납치 주장 순수하다면 한인·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해야”(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다른 나라와 관여하려면 문호를 개방하고 유엔 인권 관리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토마스 오헤아 퀴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촉구함. 또 북한 식당종업원 12명이 납치됐다는 주장이 순수한 것이라면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함.
- 퀴타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6일부터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점을 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힘. “첫째,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제안 등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이 문제는 핵심 안건이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실제로 현재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에서는 책임 규명과 처벌 과정을 위한 법률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현재 상황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식량권, 건강권 등의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 또한 방북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이며,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을 제안했다고 함. 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이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8. 2. 15.

### ■北 “美, 인권문제 걸고 들면 값비싼 대가 치를 것”(연합뉴스)

- 북한은 15일 미국이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곧바로 사망한 오토 워비어 사건 등을 부각하는 것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실장은 이날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워비어 사망 문제를 또다시 우리와 억지로 연관시키면서 반공화국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워비어가 생명 지표가 정상인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후 1주일도 못되어 급사한 데 대한 대답은 현 미 행정부가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트럼프 패가 월남 도주한 인간쓰레기들까지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끌어들이면서 치졸하게 놀아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반증해줄 뿐”이라며 “트럼프 패의 추태는 미국에 대한 인도주의와 관용은 절대 금물이며 법의 날을 더욱 예리하게 베풀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혀주고 있다”고 말함.
- 담화는 “미국은 저들의 인권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중·자숙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2018. 2. 20.

### ■북, 명절배급이 오히려 주민 불만 키워(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지난 2월 16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에 주민들에게 명절용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알려짐. 오랜만에 배급을 받은 주민들은 치솟는 식량값을 잡으려는 당국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20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번 2.16을 맞아 오랜만에 주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했다”면서 “비록 배급된 식량의 양은 보잘것없지만 1990년대 중반 배급제도가 사라진 후 전국적인 규모로 일시에 배급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각 기관들에서 자체로 식량을 마련해 세대별 인원수에 맞춰 이틀분의 식량을 배급했다”면서 “세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관과 기업소에 소속된 4인가족의 경우 3kg 정도의 식량을 받았다”고 설명함.
- 또한 “원래의 배급제도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근일수를 따져

발행한 배급표로 식량을 배급했었다”며 “하지만 90년대 초부터 미공급이 지속되고 배급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밀리다가 90년대 중반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함.

- 이어 “당시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당국이 더는 배급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각 단위들에서 자체로 일거리와 자금을 마련해 생산을 하고 종업원의 식량을 마련해 배급해주는 8.3독립채산제라는 게 생겨났다”고 설명함.

2018. 2. 21.

#### ■ 귀국 앞둔 북 근로자들 편법 외화벌이(자유아시아방송)

- 귀국을 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중국에 남아 귀국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잔류 근로자들과 이들을 감독하는 관리자(지배인, 보위 지도원 등)들이 귀국전에 개인 외화소득을 올리기 위해 편법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함.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조선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에서 나오는 임금 소득은 조선당국에 보고가 되어있어 지배인이나 보안원, 근로자들은 한 푼도 따로 챙길 수 없다”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중국인 고용주의 양해를 얻어 기본 8시간외에 몇 시간 잔업을 계속하고 잔업시간에 대한 보수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개인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조선 근로자의 딱한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중국회사 사장들은 귀국하기 전 2~3달 정도 이 같은 방법으로 조선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덧붙임.
- 소식통은 이어서 “저녁식사 후 보통 밤 12시까지 공장에서 봉제일이나 식품가공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임금은 본국에 보고하지 않고 관리자(지배인, 보위지도원)와 노동자가 50대 50의 비율로 나누고 있다”고 전함. “이런 분배율은 관리자에게 절대로 유리하지만 중국인 사장을 움직일 힘이 없는 근로자들은 이마저도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다”고 소식통은 지적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8. 2. 16.

#### ■ 이산가족들 임진각서 설 합동차례 “생사 확인, 자유 상봉 실현돼야”(미국의소리)

- 파주시 임진각에서 설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이 임진각 망배단에 차례상을 마련했다고 미국의 소리가 16일에 전함.

-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안충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의 날로 제정하고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자유로운 상봉을 최우선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모제가 되어 다시는 이곳에서 설움을 달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라고 밝힘.
-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합동 차례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남북 모두 민족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함.
- 조 장관은 “조건 없이 하루속히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하기만 하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함.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8. 2. 18.

##### ■ “아들 보러 돌아가려고…” 北보위성에 쌀 130t 보낸 탈북민(연합뉴스)

-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대량의 쌀을 보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짐.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탈출예비 등 혐의로 A(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힘.
- A씨는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1억 500만원 상당)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음.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검거되기 직전 브로커에게 8천만원을 송금해 쌀을 추가로 보내려 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검거 당시 자택을 처분하는 등 한국 생활을 정리한 상태여서 북한에 가려고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음. 탈북민이 입북한 사례는 종종 있지만 A씨처럼 입북에 앞서 보위성을 비롯한 북한 측에 쌀 등을 보내 자진지원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검찰은 설명함.
- 그는 2011년 탈북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지난해 초부터 보위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됨. 일단 북한에 가면 탈북을 한 데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를 피하려고 보위성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쌀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됨.

2018. 2. 21.

■ **캐나다 정부 “5년간 탈북자 165명 추방, 95명 추방 절차중”(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국외로 추방된 탈북자 수가 165명에 이른다고 밝힘.
- 연도별로는 2013년 17명을 시작으로 2014년 71명으로 4배 이상 추방자 수가 급증했다 2015년 44명, 이후 2016년 24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추방된 탈북자 수가 9명에 그침. 국경관리청은 이 밖에 탈북자 95명에 대한 추방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함.
- 최근 알자지라 등 일부 언론이 보도한 수천 명 대의 탈북자 추방 기사는 근거가 없다고 밝힘.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중 상당수는 그 동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숨긴 채 난민 신청을 했고 이 때문에 이미 추방됐거나 추방될 위기에 몰림. 난민 지위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중개인 등에게서 듣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임. 캐나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았거나 영주권까지 취득한 탈북자에 대해서까지 위장 난민 신청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도 함.
-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모임인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는 지난해 말 캐나다 정부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임. 탈북자들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는 캐나다 토론통의 한 난민 전문 변호사는 최근에는 탈북자들도 난민신청을 할 때 처음부터 한국을 거쳐 캐나다로 왔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함.

## 5. 대북지원

2018. 2. 15.

■ **프랑스단체, 북 북창 양어장에 기술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지난달 2일부터 평안남도 북창군에 있는 양식장에서 올해 첫 기술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이 단체는 이번 사업이 총 4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유럽연합의 자금 약 78만 유로(€777,930), 즉 미화 약 80만 달러가 투입된다고 말함. 이번 사업을 통해 평안남도 115개 보육기관에 3천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벨기에의 장블루 농업대학(Gembloux Agro-Bio Tech)이 이번 사업을 주도적으로 맡고, 베트남 국립농업대학(VNUA)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함. 이 두 대학은 지난 1998년 이래로 양식업과 관련해 서로 교류해왔으며 이달 초에 북창 지역에서 현장 실사를 갖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아울러 이미 지난 2010년과 2015년 물고기 생산 증대사업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을 공급해 왔으며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함.